

제16회 울트라프로그램 -에너지 및 생명공학분야 “학계간 공동연구 · 국제적 인적네트워크 활성화해야”

글 | 한국과총 정책홍보팀



2008 한·EU울트라프로그램 라운드테이블 생명공학분야 단체 기념사진

라프로그래머에서는 에너지분야와 생명공학 분야를 다루었다. 초청연사로는 에너지 분야에서 독일 패더본대 초빙교수인 김재금 교수가, 생명공학 분야에서는 아일랜드 트리니티대학의 목현 교수가 발표를 했으며, 해외 유럽에서 활동 중인 연구자와 국내 에너지 및 생명공학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한·EU울트라 프로그램은 유럽지역에서 처음 개최된 행사로 주최국인 독일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의 과학기술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유럽의 관련 분야 동향과 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지난 8월 29일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한국과 유럽에 있는 우수 한인과학기술자의 상호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16회 울트라프로그램’을 개최했다.

2008 EKC(한·EU학술회의) 개최 기간 중에 개최된 이번 울트

라 나라 과학기술 발전 방안에 관한 폭넓은 내용이 논의되었다.

에너지 절약에 대한 문화적·사회적 이슈화 강조

오전에 개최된 에너지 분야 세션에서 독일의 에너지 플랜트 프로세스와 발전소 기술 및 재활용 분야의 권위자이며, 한국과의 공



2008년 · EU올트라 프로그램 라운드테이블 에너지분야 김재궁 교수의 발표모습

동연구 프로젝트 수행 등 관련분야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한 김재궁 패터본대 초빙교수는 '폐자동차 재활용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수소에너지 및 차세대 연료전지 기술개발에 대한 내용과 독일의 현대식 폐기물 처리공정기술'에 대한 발표를 했다. 김재궁 교수는 "독일은 2005년 6월부터 생활 폐기물 매립금지법이 제정되어 오래 전부터 현대식 폐기물 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지명토론자로 나선 장순홍 KAIST 부총장은 "한국은 최근 이명박 정부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해 석유 이후의 시대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위한 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래현 서울산업대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중 신·재생 에너지를 2%에서 11%로 높이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며 한국에서 신·재생에너지는 부족한 국내자원으로는 시장성이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창훈 프랑스 ITER 파견연구원은 "에너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에너지를 아껴야 한다는 집요한 홍보가 필요하다"며 "에너지 절약의 사회 전체의 내부적 변화와 문화적, 사회적 이슈화를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세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등에 술선수범함으로써 범국민

적인 에너지절약 의식 확산 및 기후 변화대응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는 의견을 다함께 제시했다.

세계적·지역적·학제 간 벽 뛰어넘어

오전에 이어 개최된 생명공학 세션에서는 유럽의 생명공학 연구 수준 및 한국의 생명공학 연구수준과 동향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발제에 나선 목 현 트리니티대 교수는 최근 자신이 연구하고 있는 '단백질 접힘 연구분야'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언급하며, 단백질 접힘 현상에 관한 세부 연구 3가지 ① 방법론적 접근 방법, NMR를 이용한 Transition State 규명 ② 퇴행성 뇌질환에 관련된 단백질의 이상 접힘 ③ 새로운 단백질 접힘 상태라고 할 수 있는 HAMLET 소개에 대해서 발표했다.

또한, 목 교수는 한국의 생명공학에 대해 "한국에서는 기초연구와 응용의 지나친 구분을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생명공학에서는 둘 간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성공하면 바로 적용으로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응용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함께 한 임용호 건국대학교 BK21 응용생명공학 사업 단 단장은 한국에서 생명공학을 하기 어려운 이유는 "결과만 놓고



2008년 · EU올트라 프로그램 라운드테이블 생명공학 분야 목현 교수의 발표모습

보는 경향이 있으며 오랜 시간이 필요한 연구가 실행되기 힘든 분위기고 기다려 주지 않는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팽배해 투자는 많으나 결과는 아직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 밖에 조장희 가천의대 뇌과학 연구소 소장은 국내의 과학 인력은 아직 부족하고 연구집단을 많이 만들어 국내의 대학에 연구소를 많이 설립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리고 김수현 영국 런던대 의대 교수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닌 해외 파트너가 필요하며, 한국의 연구비가 해외로도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노력을 주문했다. 또한 장순홍 KAIST 부총장은 세계적 · 지역적 · 학제 간의 벽들을 뛰어넘는 것이 바이오 기술이 갈 길이며, 이와 같은 올트라 프로그램이 국내외 우수 과학기술자간에 보다 넓은 정보 교류 및 인적 네트워크의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국내외 우수과학기술자간 인적 네트워크 확대 강화

이날 목 현 교수는 미국 및 유럽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중국에 비해 한국은 좋은 인재를 이끌어주는 인적네트워크가 활발하지 못함을 지적하며, EKC와 올트라프로그램과 같은 사업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한편 개최 인사에서 이기준 회장은 올트라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과총과 재외한인과학기술자협회가 공동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UKC, EKC, JKC 등)와 연계하여 국내외 우수과학기술자 간

교류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위해 전 세계 10개 재외과학회를 통해 해외 우수 과학기술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트라 프로그램은 학문적 권위를 인정받는 우수 한인 과학기술자와 국내 과학기술자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우수사례 확산 및 경험 전수를 목적으로 2006년부터 지금까지 16회째 진행되어 왔다. 과총에서는 10월에 장소를 아시아 무대로 옮겨 일본 도쿄에서 17회 올트라프로그램을 개최할 예정이며, 또한 그 동안 올트라프로그램에 참석한 과학기술자를 중심으로 종합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김우식 올트라 프로그램 자문위원장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한 김수삼 올트라 프로그램 자문위원 겸 과총 부회장은 “올트라 프로그램이 국내외 우수 과학기술자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협력하고 친목도모를 통해 에너지 모음이 활성화되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에너지분야 참석자 명단

- ▷주최측 이기준 과총회장, 유승덕 재독과협회장
- ▷정 부 박정택 (주)오스트리아 참사관
- ▷학 계 김수삼 한양대 교수, 장순홍 KAIST 부총장, 김재민 영국 스트라스 클라이드대 연구원, 김래현 서울산업대 교수
- ▷연구계 전창훈 프랑스 ITER 파견연구원, 이강인 자원재활용 기술개발사업단 단장, 조 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건물열성능센터장, 이승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기획실장, 한승호 강원테크노파크 사업단장
- ▷산업계 최승환 SK에너지 기술전략팀 부장

생명공학분야 참석자 명단

- ▷주최측 이기준 과총회장, 김진일 재영과협회장
- ▷정 부 박정택 (주)오스트리아 참사관
- ▷학 계 김수삼 한양대 교수, 장순홍 KAIST 부총장, 김수현 영국 런던대학교 의대 조교수, 이윤수 영국 왕립런던대학교 의대 교수, 임용호 건국대 BK21 응용생명공학 사업단 단장, 박정원 독일 하노버 의대 교수
- ▷연구계 조장희 가천의대 뇌과학연구소 소장, 한승호 강원테크노파크 사업단장